

복숭아

1. 시놉시스

“복숭아는 어혈을 푸는 것에 특효다.”

다정의 할아버지는 가난하지만 정의로운 한의사였다. 할아버지의 집에는 항상 복숭아가 많았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다정을 위한 할아버지의 배려였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 있던 커다란 복숭아나무는 다정의 어릴 적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다. 분홍빛 꽃이 예쁘게 핀 것은 작은 손으로 만졌던 그날을 다정은 커서도 잊지 못한다. 어릴 적 다정은 할아버지의 집에서 자라왔다. 부모님의 일이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다정은 길거리 복숭아를 보면 지나치지 못한다. 그리고 항상 길거리에서 사는 복숭아를 그냥 사도 너무나도 맛이 있었다. 다정은 생각한다. 항상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정의 엄마는 요양보호사이다. 최근 들어 힘들어 보이는 엄마의 표정에 다정은 신경쓰이기만 한다. 그러는 어느 날은 큰 복숭아 상자를 들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다. 다정은 그 모습에 복숭아를 달라고 하지만 다정의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황급히 나가버린다.

다정은 방학을 맞이한 미대생으로 집에 홀로 있다가 TV에 나오는 뉴스를 본다. 최근 요양원 내 치매 할머니폭행에 대한 뉴스였다. 다정은 무슨 일인가 싶다. 그러다 그 폭행사건의 지역이 다정이 살고 있던 지역임을 알게 된다.

다정은 집에 가다가 복숭아를 파는 곳을 보게 되고, 엄마가 저번에 가지고 간 상자가 떠올라 한 상자를 통째로 달라고 한다. 기쁜 표정의 길거리 상인. 다정은 번쩍 복숭아 한 상자를 들고는 킁킁 대며 가고 있는데, 상인이 급히 달려와서는 다정에게 썩은 복숭아가 상자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바꿔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다정은 감사함을 느낀다. 역시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정은 바꿔준 복숭아를 스케치로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골목골목을 그리기로 한다. 그러다 보게 된 치매할머니와 엄마의 실감이. 갑자기 예전에 본 뉴스가 떠오른다. 뉴스의 뒷이야기는 폭력사건이 있었으나 큰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는 이야기. 다정은 엄마가 들고 나갔던 복숭아 상자를 떠올린다. 다정은 혹시나 하는 의심을 한다.

다정은 길거리 상인에게 산 복숭아를 잘라 예쁘게 접시에 둔다.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해 엄마를 밤늦게까지 기다리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표정이 좋지 않다. 엄마에게 다정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엄마는 요양원의 비리에 대해서 말한다. 순간 마음이 놓이는 다정.

“다행이다.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2. 시나리오

S# 1 과거, 다정 할아버지의 집. (겨울, 낮)

한 시골의 초가집. 눈이 잔뜩 쌓여 있다. 집 안에는 한문 글귀들과 한약들이 즐비하다. 그리고 그 집 앞 마당에 있는 복숭아나무. 그 밑에서 뛰어 놀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양갈래를 하고 목도리를 한 채 뭐가 좋은지 깔깔거리고 있다. 여자아이가 복숭아나무에 푹 하고 기댄다. 나무에 기댄 아이와 나무의 전경.

타이틀 ... 복숭아

(F.I)

S# 2 현재, 동대문 거리. (여름, 낮)

달리고 있는 다정. 급한 약속에 늦은 모양이다. 달리다 지쳐 멈춘 다정의 눈에 보인 길거리 상인 할머니의 복숭아. 스쳐가듯 달려 나가는 다정. 전화가 오고.

다정 (달리며 숨이 가쁜) 어? 왜? 나 거의 다 도착했어. (갑자기 멈춰선 다정) 뭐? 그게 무슨 소리야?

S# 3 동대문 시장 안. (여름, 낮)

다정 이걸 아니죠!

화가 난 표정의 다인. 무표정한 상인. 안절부절 못하고 선 민규.

다정 아니, 저랑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상인 나는 땅 파서 장사하나? 돈을 올려 주겠다고 당연히 줘야지!

다정 아니! 저랑 약속은요?

상인 그거야 증거 있나?

다정 (상인에게 달려드는) 저기요! 아저씨!

상인 어이구! 아가씨가 사람을 치겠네?

다정 아니, 아가씨고 뭐시고! 저한테 파신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달려온 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그럼 다른 대책이라도 마련해주시던가요!

상인 나만 그 천 취급하겠어? 젊은 사람이 더 발품 팔아봐. 있을 거야. 소란 피우지 말고 어여 가! 예잇. (상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다정 에? 아저씨!

화난 다정을 부여잡는 민규.

다정 야. 잠깐 놔봐.

민규 진정해! 됐어! 저 아저씨한테 화내봐야 이미 팔리고 없잖아. 다른 거
 찾아보자. 응? 다정아?

다정 (진정하고는) 아.. 진짜 어이가... (큰 목소리로) 없네!! 내가 다시는
 이 가게 와서 사나봐라!

다정을 간신히 달래는 민규.

S# 3 동대문 거리 (여름, 낮)

다정과 민규, 나란히 걸어오는. 다정,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다정 아... 진짜 내가 그 천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색이랑 패턴부터가
 달랐다고.

민규 어쩔 수 없잖아.

다정 하... 진짜 너무하다. 돈 얼마 없어줬다고 바로 모르는 사람인 체
 하고. 더럽다 진짜.

다정은 아까 봤던 길거리 상인 할머니를 본다. 다인은 갑자기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다정 (상냥하게 웃으며) 할머니! 복숭아 얼마예요?

할머니 (친절하게) 복숭아? 5알에 만원이야.

다정 그럼 5알 주세요.

할머니 알이 크고 예쁘게 생긴 걸로 골라줄게. 맛있게 먹어요.

할머니, 복숭아를 봉지에 하나하나 천천히 골라서 넣어 주는.

할머니 자~ 맛있게 먹어요. 겉보기에 투박해도 맛은 아주 잘 들었어.

다정 감사합니다.

할머니 내가 더 감사하지. 조심히 가요!

다정, 해맑은 표정으로 민규에게 오는.

민규 복숭아 좋아해?
다정 응!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했어. 내가 사는 복숭아는 항상 맛이
 끝내주더라고. 이건 우리 엄마도 인정했어. 내가 산 복숭아가 제일
 맛있다고. 역시 내가 운이 좋아! (자신감에 가득차서) 그리고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머리를 뒤로 넘기며)
 예뻐졌달까?

민규, 고개를 끄덕이다 다정의 마지막 말에 멈칫하고 그 자리에 선다. 웃으며
앞서 나가던 다정은 그 사실을 깨닫고 민망한 표정으로 민규를 본다.

다정 그래, 내가 마지막 말은 취소한다. 됐니?
민규 응. 아주 완벽해. 가자. 우리 공모전 준비해야지.
다정 그으래.. 고맙다. (힘 있게) 가자!

장난을 치며 걸어가는 다정과 민규의 뒷모습.

다정(E) 우리 공모전 컨셉 복숭아로 잡을까?
민규(E) (단호한) 아니.
다정(E) 왜에?

길거리 상인이 팔고 있는 복숭아가 클로즈업되는.

민규(E) 나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
다정(E) 아... 어쩐 우리는 하나도 맞는 게 없니? 우리... 팀은 맞니?

S# 4 다정의 집 (여름, 오후)

현관으로 들어오는 다정, 엄마의 신발을 발견한다.

다정 응? 엄마? 벌써?

집안에 들어와.

다정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당황한 표정으로 안방에서 나오는, 손에 들린 복숭아 상자.

다정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 응? 아니야. 아무 일도. 엄마 다시 나간다!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서둘러 나가는 엄마. 다정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나가는 엄마의 뒤에 대고 소리친다.

다정 엄마! 그 복숭아상자는 뭐야? 나 주는 건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다정 (무안하고 아쉬운) 아니구나.. 그래...

CUT TO

다정,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대충 밥을 챙겨먹으며 TV를 보고 있다. TV를 돌리다가 뉴스에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자 다정은 멈추는. 기자의 말에 집중하는 다정.

기자1 최근, 요양원 내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할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낮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치매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보호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요양보호사가 되려 치매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정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다정 우리 동네잖아?

CUT TO

다정은 식탁에 앉아 자신이 사온 복숭아를 예쁘게 깎아 접시에 올려둔다. 뿌듯한 표정. 그리고 식탁 위 액자. 어린 다정과 다정의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 다정은 그 자신을 보며 웃음 짓고.

다정을 지나쳐 뒤 쪽으로 나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해서 여름 햇살이 강렬하게 들어온다. 화면 속에 그 빛이 담기고, 화면은 하얗게 변한다. 그리고 디졸브.

어린 다정(E) 할아버지 이거 봐요!

S# 5 과거, 할아버지의 집 (여름, 오후)

나무 위 붉어진 복숭아를 가리키며 할아버지를 부르는 어린 다정.

어린 다정 할아버지! 이거 다 익은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것 같구나. 아주 잘 익었다.

할아버지가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를 톡하고 따는, 다정에게 건네는.

할아버지 다정아, 이 복숭아라는 녀석이 아주 달고 맛있는 놈인데 말이야. 그렇게 달달한 녀석이 어혈에 특효약이다.

어린 다정 어혈은 몸속에 피가 어느 한 곳에 멈춰 뭉쳐있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할아버지 (겹겹 웃으며) 그래, 맞다. 역시 누구 손녀 아니랄까봐. 아주 똑 소리 나는 구나.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와서는 할아버지를 밀치고, 멍살을 잡는.

남자 할아버지! 왜 아직도 싸인을 안하세요? 싸인을 하면 그냥 저희 다 편해지는 건데 왜 안하시냐고요!

할아버지 (멍살을 풀어내며, 침착한) 자네야 말로 무례하게 무슨 짓인가? 그 종이 위에 싸인을 하면 다 될 것 같나? 자네야 그 쪽에서 돈을 받았으니 편해질 테지만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나?

남자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밀치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면 저는 뭐가 됩니까!

할아버지 (침착한) 아이가 있네. 그만하지.

남자, 뒤로 돌아 침을 한 번 뺏고 가는,

남자 다음에 또 옵니다. 그때는 저 혼자 아닐 거예요.

남자가 사라지고, 어린 다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잡고 있다. 그 작은 손을 할아버지는 온화한 웃음을 띤 채 잡아준다. 그러자 어린 다정은 표정이 풀리고, 해맑게 웃는다. 할아버지는 손은 잡아준 채 다른 손으로 복숭아나무에 손을 올린다.

할아버지 이 복숭아나무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복숭아나무는 집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거든. (갑자기 심각한 표정, 어린 다정을 보며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마치 귀신같은 것을 말이다.

어린 다정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주저앉은 할아버지.

어린 다정 (해맑게 웃으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런 건.
할아버지 에? 그러니? 그럼 우리 아가는 뭐가 무서우려나?
어린 다정 사람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떠나실까 무섭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실 때에는 꼭 제게 말씀해주시고 가셔야 해요!

할아버지, 놀란 표정으로 어린 다정을 보는. 어린 다정은 할아버지를 안아 준다. 그 둘의 뒤로 할아버지의 집, 한약들이 즐비하여 있고,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의 사진. 할아버지가 치료해준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다. 낡은 집안 가구들. 그리고 집의 전경, 마당에서 자라는 복숭아나무.

다정(E) 이거 얼마예요?

(디졸브)

S# 6 길거리 (낮)

복숭아를 팔고 있는 길거리 트럭 상인 앞에서 있는 다정. 트럭 상인은 젊다.

다정 아저씨, 복숭아 한 상자에 얼마해요?
아저씨 (친절하고 밝은) 한 상자에 2만 5천원입니다! 한 상자 드릴까요?
다정 네, 주세요!

S# 7 길거리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 (여름, 낮)

복숭아 한 상자를 들고 길거리를 지나 이어폰을 끼고 골목길로 걸어가던 다정, 그 뒤로 달려오는 한 남자. 다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다정, 놀란 표정으로 뒤를 본다. 아까 전 복숭아를 판 상인이다.

아저씨 (뛰어와서 숨이 찬) 헉헉, 아이고..
다정 (이어폰을 빼며) 아저씨! 왜요? 왜 오신 거예요? 혹시 제가 돈 잘못 계산했나요?
아저씨 아니 그게 아니라, (숨을 가다듬고) 그 복숭아상자에 썩은 복숭아가 있어서 말이에요. 바꿔주려고 왔어요.
다정 네?
아저씨 오늘 아침에 제가 물건을 들고오니까 썩은 복숭아 하나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서...(숨을 고르며) 그 상자를 찾아 놓고 제가 빼둔 건데,
제가 실수로 손님께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상인은 검은 봉투에 복숭아 두 개를 챙겨온.

아저씨 이거 챙겨가세요. 팔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다정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챙겨가세요.
다정 그럼... 저 한 개만 가져갈게요! (상인이 건넨 검은 봉투에서 복숭아
 한 개를 꺼내는) 썩은 복숭아가 한 개라고 하셨죠?
아저씨 아... 네 그렇습니다.
다정 그럼! 한 개로도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아저씨 그래도 하나 더 챙겨 가지죠. 제가 실수한 거라서.
다정 아니요. 정말 충분해요. 감사해요.

다정은 고개로 끄덕하고 지나쳐가는. 예상치 못한 다정의 반응에 멍한 표정
으로 멈춰 서 있는 상인. 다정의 뒷모습,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춰선. 뒤로
돌아 상인에게 외친다.

다정 오늘 많이 파세요!!

해맑은 미소를 보이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다정. 상인 그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반대편 트럭 쪽으로 걸어가는.

S# 8 다정의 방 (여름, 오후)

다정, 파스텔로 뭔가를 열심히 그리는. 복숭아다. 그 그림 옆에 깎인 채 접시
에 놓인 복숭아. 포크로 복숭아를 먹으면서 그리는. 다정 한 입 먹고 미소를
짓는.

다정 맛있네. 역시, 내가 운이 참 좋아.

S# 9 골목길 (여름, 오후)

골목길 사이사이에서 크로키를 하는 다정과 민규. 집중한 모습이다.

민규 그래서 어제 맛있었어?
다정 응, 맛있더라. 맛있는 걸로 골라주신 것 같아.
민규 착한 아저씨셨네.

다정 응, 음.. 아저씨라기보다 오빠에 가까운 것 같았는데.
 민규 (크로키를 하다 멈추고) 응?
 다정 되게 잘생기셨던 것 같기도 하고...
 민규 (다정을 보며, 급하게) 잘생겼어?
 다정 응. 잘생기셨어. 착하시고.
 민규 (다시 태연하게 크로키를 하며) 그랬구나... (갑자기) 키는 크디?
 다정 (크로키를 멈추고, 생각하더니) 음.. (옆에 민규의 정수리 쪽에 손을 올리더니) 한 이쯤?
 민규 (당황한) 그.. 그래? 나보다 크네? 그렇구나.
 다정 왜?
 민규 네가 어제 계속 그 아저씨에 대해서 말하길래.
 다정 내가 진짜 운이 좋다는 것을 느꼈거든. 하여튼..

골목길의 끝에서 나는 큰 소리.

다정 뭐지?

달려가는 다정, 그 뒤를 쫓아가는 민규.

S# 10 골목길 끝 (여름, 오후)

한 할머니가 달려오는 것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쫓아오는 한 여자. 다정의
 엄마다.

다정(E) 엄마?

간신히, 뛰어가던 할머니를 잡은 다정의 엄마. 계속되는 실랑이.

엄마 (화난 목소리로) 할머니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치매할머니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때리지 말아요.

엄마 할머니!

치매할머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다른 복지관 사람이 달려온다.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요양원 사람 할머니! 가요, 우리. 네? 어서요. 갑시다.

다정, 황급히 뒤를 도는. 그 앞에 선 민규.

민규 무슨 일이야?

다정 (멍한 표정이었다가 다시 해맑게 웃으며)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가자.

민규 (떨떠름한) 어? 어...

다정, 다시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고. 다정의 엄마는 치매 할머니와 다뤘던 그 자리에 서 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숨을 쉬는.

S# 11 다정의 집 (여름, 밤)

거실 소파에 멍한 표정으로 누워있는 다정. 뭔가 생각 중이다. 켜져 있는 TV. 광고소리가 시끄럽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정, 눈을 감고 미간을 찌푸리는. 그리고 시작되는 뉴스 시그널. 다정은 억지로 눈을 꼭 감고 있다. TV의 뉴스가 시작되고, 기자의 뉴스가 시작된다.

기자2(E) 김영란 법에 의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선풍기소리, E) 국회의원의 자리를 대신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정의 방, 책상 위에 올려져있는 복숭아 그림 클로즈업. 다시 거실에 있는 다정의 모습. TV 속 기자의 모습.

기자2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선거 운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선전 문구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등과 같이 시민을 위한 정치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우진 기자였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다정의 얼굴, 클로즈업. 그리고 앵커로 바뀐 TV 화면.

앵커 이제 보궐선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진심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일꾼을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진정한 일꾼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요양원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들에 대한 심층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고승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승효 기자?

다정, 눈을 뜨고 TV 화면에 집중하는.

기자1 지난 주 발생한 치매할머니 폭행사건은 현재 고소가 취하된 상태입니다. 해당 요양원과 요양보호사가 치매할머니의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경찰 측에서도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정, 심각한 표정.

(인서트) S# 4 다정의 엄마가 들고 나간 복숭아 상자 클로즈업.

S# 12 카페 안 (여름, 저녁)

민규, 노트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다정, 생각이 많은 표정이다.

민규 무슨 일 있어?

다정 (다시 해맑게 웃으면서) 아니야. 없어.

민규 (다정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알지만 넘어가주는) 음.. 그래 알았다. 그럼 회의를 해보자. 너 컨셉 뭘로 하고 싶은데?

다정 (생각하다가) 나 그거, 복숭아.

민규 응? 너 저번 말 진심이었어?

다정 복숭아는 한의학에서 어혈을 풀어주는데 특효인 약재야. 그러니까 멍쳐있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힘이 있는 과일이지. 사회의 막힌 곳을 풀어주는 역할이랑 복숭아랑 비유해서 컨셉을 가져보면 어떨까?

(인서트) S# 7의 길거리 상인이 보여준 복숭아 두 알.

다정 (미소를 지으며) 상자 안에 있는 썩은 복숭아 때문에 나한테 달려 오셨던 그 아저씨처럼. (번뜩 생각난 듯, 신이 나서 말하는) 그 분을 가지고 컨셉을 잡아볼까! 인터뷰 부탁드려볼까?

민규 (단호하게, 질투) 안 돼. 복숭아는 좋은데 그 아저씨는 아니야.

다정 왜에?

민규 그냥. (말을 돌리며) 근데 너는 그런 걸 어디서 배웠냐?

다정 응?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그냥 어릴 때 배웠지.

(인서트) S# 10 다정의 엄마와 치매할머니의 실랑이.

다정, 갑자기 표정이 굳는.

S# 11 몽타주 (겨울, 오후)

1. 어린 다정, 집안 방에 숨어있고 큰 소리가 나는 밖.
2. 할아버지와 실랑이를 하는 검은 남자들.
3. 집안의 물건들이 부서진.
4.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서서 보는 어린 다정.
그리고 제 3자의 시선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현재의 다정.

민규(E) 다정아! 박다정!

S# 12 S# 10에 이어,
명한 표정의 다정.

민규 박다정! 너 무슨 생각해?
다정 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S# 13 다정의 집 (여름, 밤)

집안은 어둡고, 부엌만 밝다.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 다정, 그리고 식탁 위
접시에 올려있는 깎인 복숭아. 분홍빛이 예쁘다.

다정 쓸데없이 예쁘네.

그리고 보인 시계, 밤 10시다. 다정은 표정이 심각해진. 휴대폰 화면.
'늦을 것 같다. 먼저 자.' 다정, 혼자 갈변된 복숭아를 우걱우걱 씹어 꿀꺽
먹는.

CUT TO

S# 14 다정의 방 (여름, 밤)

다정, 누워있는. 뒤척거리는. 생각이 많은.

(인서트) - 몽타주

1. S# 4

기자1 치매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보호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요양보호사가 되려 치매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요양원과 요양보호사 들에 대한 지자체 의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정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다정 우리 동네잖아?

2. S# 10

엄마 (화난 목소리로) 할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치매할머니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때리지 말아요.

3. S# 11

기자1 지난 주 발생한 치매할머니 폭행사건은 현재 고소가 취하된
상태입니다. 해당 요양원과 요양보호사가 치매할머니의 가족
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경찰 측에서도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4. S# 4

엄마, 당황한 표정으로 안방에서 나오는, 손에 들린 복숭아 상자.

다정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 응? 아니야. 아무 일도. 엄마 다시 나간다!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다정 아닐거야. 그럴리가 없어.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엄마 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이미 그렇게 가기로 합의된 상황이잖아요! 그
쪽에서 마음대로 합의금 결정하는 법도 있나요? 나는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요양원 측에서 마음대로 해요! 깔끔하게 일처리도 못하고
뭐하는 거예요!

놀란 표정의 다정.

S# 15 다정의 방 (여름, 아침)

아침 햇살이 다정의 방안으로 들어온다. 비어있는 침대. 그리고 옷장 옆에서 부지런히 나갈 준비를 하는 다정. 다정의 책상에 놓인 복숭아 그림에 햇살이 비추는. 책상 위 거울에 비친 다정의 얼굴, 뭔가 결심한 표정이다. 가방을 챙겨 방을 나가는.

민규(E) (아쉬운) 같이 가지.

S# 16 버스터미널 (여름, 아침)

민규와 전화통화 중인 다정.

다정 아니야. 진짜 미안해. 갑자기 약속 파토내서....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기사 강릉! 강릉! 8시차 타실 분 오세요!

다정, 전화를 황급히 끊고 버스에 올라타는.

S# 17 몽타주

1. 시외버스를 타고 출발한 다정, 우울한 표정이다.
2. 강릉버스터미널에서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다정.
3. 작은 마을버스를 탄 다정, 설레는 표정이다.

S# 18 시골 마을.

한참을 달린 마을버스에서 내리는,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뿐. 젊은이는 다정 뿐이다. 다정은 할머니들의 짐을 내려드리고는 길을 묻는다.

다정 할머니, 저 예전 그 집에 가려고 하는 데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할머니 저기! 저쪽 집이야.

다정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길을 떠나고. 다정,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보고 벽차오르는 표정이다.

다정(E) 딱 10년만이다.

벽찬 표정의 다정. 눈물이 고이는.

다정(E) 그날 이후로.

(디졸브)

S# 19 과거, 병원 응급실 앞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다정의 엄마, 그리고 어린 다정. 병원 공용 TV 뉴스,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 대한 소식이다.

앵커 (흥분한) 기쁨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짙막한 뉴스, ‘A기업에 토지 사용을 거부하던 B모씨, 용역 업체 폭행에 사망.’

S# 20 현재, 할아버지의 집. (여름, 낮)

다정, 눈물이 그렁그렁한. 집의 모습이 예전 그대로인. 썩대밭이 됐던 그 모습 역시 그대로다.

다정 (혼잣말) 진짜 그대로다.

그리고 다정의 눈에 보인 복숭아나무. 튼튼하게 자라있다. 다정이 발뒤꿈치를 들어 나뭇가지를 만져보는. 심지어 복숭아가 자라있는.

다정 (놀란) 어떻게....

그 순간, 마당 안으로 들어온 한 아주머니(사투리).

아주머니 거! 누구요?

다정 네? 누구세요?

아주머니 아가씨는 누구요?

다정 아... 저 예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주머니 (반가운) 아~ 김씨 할아버지 손녀?

다정 네! 아세요?

아주머니 알다마다 김씨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여기 그냥 썩대밭 됐을 거야. 지켜주신 거지.

아주머니는 다정이 서 있던 복숭아나무 근처로 와서 물을 주고, 뿌리 근처

잡초를 뽑는.

아주머니 아니, 어쩔 한 번을 안 와. 어떻게 컷나 보고 싶었는데. (다정을 힐끔 보더니) 예쁘게 컷네, 할아버지 닮아서. 김씨 할아버지가 아주 미남이 션다고.

다정 그래요?

아주머니 그럼! 인기가 대단하셨지.

다정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뭐가?

다정 관리해주셔서.

아주머니 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관리한 거 이 나무 밖에 없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번에 이 나무에서 그렇게 복숭아가 맛나게 났어. 가져가! 가져가서 어머니도 드리고.

다정 복숭아요?

아주머니 김씨 할아버지가 손녀 먹인다고 심어두신 거 아니여. 그럼 손녀가 왔으니 가져가야지! 나도 관리하면서 챙겨먹었으니 그건 관리비로 하자구. 어여 와.

S# 21 마을버스 안 (여름, 오후)

다정의 다리 앞에 검은 봉투 여러 개. 그리고 창 밖에서 다정을 배웅해주는 아주머니. 다정, 웃음을 보이며 인사하는.

S# 22 시외버스 안 (여름, 밤)

어두워진 서울 야경이 보이는 버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다정. 한결 마음이 편해진 모습.

S# 23 다정의 집 (여름, 밤)

다정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불이 켜져있는 집안. 엄마가 방에서 나오는.

엄마 박다정!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다정 엄마?

엄마 (걱정하는) 걱정했잖아! 방학했다고 어딜 그렇게 막 싸돌아다니는 거야!

다정 (화난 목소리) 엄마!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 알아?

엄마 (다정의 반응에 놀란, 수그러진) 어딜 갔다왔는데?

다정 (울컥한 목소리) 강릉.

엄마 (이해가 되지 않는) 강릉? 거길 왜 갔어? 혼자?

다정 엄마는 내가 일주일 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 무슨.....
 다정 엄마 요양원에서 무슨 일 없어?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엄마 요...요양원? (싱긋 웃으며) 엄마 이제 백수야! 오늘 사표썼어!
 다정 (울컥해서 이어서 말하려다가 엄마에 대답에 당황해 멈칫하는.) 어?
 엄마 (온화하게 웃는) 엄마, 이제 그 요양원 안 나가려고.
 다정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리 요양원 엄마가 확 신고해버렸어.
 다정 (놀란) 응?
 엄마 참 치사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었어.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거지.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걸지도 몰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대놓고 할머니들 씌지 돈에 손을 대더라고! 아휴... 넌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다정 엄마.... 미안해요. 고마워요! (울면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엄마 어머? 애가 왜 이래?

CUT TO

S# 24 다정의 집 부엌 (여름, 밤)

검은 봉투에 들어있던 복숭아가 없고, 접시 위에 깔린 복숭아 클로즈업.

엄마 (기분 좋게 웃으며) 우리 딸 그렇게 걱정했어? 일주일동안 마음고생
 했겠네?
 다정 진짜로.. 걱정했다구요.
 엄마 첫째로 복숭아상자는 할머니들 드리려고 챙긴 거고,

(인서트) 할머니들께 복숭아를 깎아드리는 다정의 엄마.

엄마 너한테 들키면 달라고 할까봐 황급히 나갔다! 워낙 네가 복숭아 귀신
 이니. 그리고 둘째로 골목길에서 할머니님, 그 분은 가정폭력을 당하
 셨던 분이셨어.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거고. 뉴스에 나왔던
 요양원은 우리 요양원 옆 동네야. 그래서 한창 시끄러웠어.
 다정 나는 엄마가 진짜 그런 걸까봐. 엄청 걱정했던 말이야.
 엄마 내가 힘들게 살았어도 창피한 행동은 안 해. 할머니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일을 했는데, 그 약속 지켜야지! 안 그러니?
 다정 다행이다. 오늘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F.O)

거실 쪽에 켜져 있는 TV. 보궐선거 공약에 대한 방송이 재방송 중이다.

후보 1 시민여러분! 시민여러분의 튼튼하고 부지런한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 약속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뿌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후보 1.

S# 25 길거리

S# 7의 상인 아저씨의 트럭을 본 다정을 반갑게 달려오는. 젊은 상인도 달려오는 다정을 보고 웃음을 짓는다.

다정 (반가운) 아저씨!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다정 오늘도 복숭아 사가려는데 맛있어요?
아저씨 (차분한) 맛있는 것들로 골라드려야죠. 맛있는 걸 팔수는 없잖아요?

상인은 트럭에서 복숭아를 골라 담아 주고는, 다정에게 건넨다.

다정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야 말로 감사합니다.

다정, 그 트럭에서 멀어지며 신난 표정으로 복숭아가 들어있는 봉지를 한 손에 들고는, 발랄하게 걷는다.

다정 NA 역시 나는 운이 좋다.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S# 26 과거, 할아버지의 집(겨울, 밤)

방 안에 따뜻한 난로를 켜놓은, 방 가운데에는 굴이 있다.

어린 다정 (팔짱을 끼고는 투정이 가득한) 나는 복숭아가 더 좋은데!
할아버지 (차분하게 타이르는) 복숭아는 겨울에 없어. 그래도 맛있는 굴일거야.
 굴 장수가 맛있는 굴들로 골라주더라.
어린 다정 (획 돌아 앉아, 할아버지를 보며) 할아버지도 운이 좋네?
할아버지 그럼~ 운이 좋지 매번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 말이다.

어린 다정, 굴을 신나게 까먹는.

할아버지 다음 여름에는 맛있는 복숭아를 먹자꾸나.

방안에서 나와, 집 밖의 전경. 우뚝 서 있는 마당의 복숭아나무. 온 마을의 전경. 따뜻한 불이 새어 나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길 마다 쌓인 눈을 치우는. 누구하나 찡그린 사람이 없는.

할아버지(E) 우리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END-